

종교교육학연구 제54권. pp.175-19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7. 30.

신라 하대 불교지성, 진감 선사의 삶의 교육학적 의미

안 경 식

부산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신라 하대 불교 지성이자 고승인 진감 선사의 삶을 교육학의 관점에서 탐구한 것이다. 연구자가 고승의 삶에 주목한 이유는 고승은 타고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학덕을 연마하고, 연마한 학덕을 바탕으로 교화력을 발휘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고승은 태어날 때부터 고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고승이 되며, 고승으로서 교육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고승은 인간이지만 보통의 인간이 아닌 지성인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의 교육적 인간상이다. 진감선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대의 지성인의 삶과 교육적 인간상, 그 시대의 교육적 모델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2장에서는 진감 선사의 출생과 성장기의 삶을 고찰하였고, 3장에서는 출가 후, 수행기의 삶을, 4장에서는 교화실천기의 삶을 고찰하였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진감 선사의 삶이 시사하거나 삶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진감 선사의 아동기의 삶을 통하여 신라시대 불교인의 가정교육의 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진감 선사의 경우, 아버지가 재가 불교 수행자였으며, 아버지의 삶이 진감 선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당시 불교인 집안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진감 선사의 수행기의 삶을 통하여 신라 하대 불교 지성들의 수행과정과 학습의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신라 하대의 불교 지성은 대부분 도당 유학을 통해 지성을 연마하였으며, 주로 마조 선사, 서당 지장 선사의 문하에 입문하였다는 점을 진감 선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셋째, 고승의 대중교화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감 선사는 교화, 교육공간으로서 육조 영당을 포함한 사원의 설계자였으며, 범패를 교화의 미디어로 활용한 미디어 개발자였다. 그리고 그의 인품 역시 교화의 성공에 밑바탕이 되었다. 넷째, 신라 고승들의 지도자 교육, 특히 국왕교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감 선사를 비롯한 많은 고승들이 국왕의 스승인 국사(國師)가 되었으나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오늘날 종교가 정치와 어떤 관

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신라 하대 불교가 당시의 지방교육과 서민교육에 끼친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한국 고대 지성사에서 불교 지성의 위상을 진감 선사의 삶과 교화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진감선사, 불교지성, 불교교육, 신라교육사, 종교교육, 고승, 고대교육

I. 머리말

한국 고대 불교를 큰 변화를 중심으로 몇 시기로 구분한다면 대략 세 시기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기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던 4세기 후반부터의 전래기다. 둘째 시기는 통일기였던 7세기 전후의 융성기다. 셋째 시기는 신라 말기인 9세기 선종 도입기다. 첫째 시기에 활약했던 불교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논하기 어렵다. 둘째 시기에는 원광을 필두로 하여 자장과 원효, 의상, 진표 등 실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고대 불교사를 풍성하게 하였다. 셋째 시기는 도의, 홍척, 진감, 무염, 범일, 적조 등 선사(禪師)들이 등장하여 불교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었다. 주지하듯이 우리 학계, 특히 교육학계의 연구가 대부분 둘째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시기인 셋째 시기의 대표적 고승 가운데 한 사람인 진감(眞鑑, 774-850) 선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의 고대사는, 결코 제외할 수도 없고 제외해서도 안 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교육사 혹은 교육사상적 의의까지는 논의하기 어려운 고조선을 제외하더라도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 고대 교육사 연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고대사 연구에서 국가가 키워드가 되다보니 교육사 연구 역시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제도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 온 것과 관계가 깊다. 실제 고대 교육사, 특히 신라교육사 연구의 2대 테마가 국학과 화랑도였음은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정말 천 년의 고대 교육사에서 다룰 내용이 그렇게 빈약한가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의 관점에서 교육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유학자로서 열전(列傳)에 들어간 인물은 겨우 6명이었는데, 강수, 최치원, 설총, 최승우, 최언위, 김대문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앞의 세 명은 전(傳)이라고 할 만한 기록이 남아 있고, 뒤의 세 명은 설총 전에 부가하여 간략히 기술된 정도에 그친다. 이들만 중심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사가 도출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연구의 초점을 국가나 제도에서 인물로 옮겨야 한다. 초점을 인물로 옮긴다면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연구의 자원을 만날 수 있다. 과거 어느 논문에서 필자는 “교육은 지성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명제 아래, 지성을 인물 연구의 교육학적 기준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에서

지(知)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지성은 그 지와 관련한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지성 혹은 지성인은 교육이라는 활동을 통하여 길러야 하는 역량 혹은 교육적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¹⁾ 이렇게 관점을 제도가 아닌 인물로 바꾸어 놓으면, 김부식이 주목하지 않았던 수많은 고대의 지성들을 만날 수 있다. 『삼국사기』의 「열전」에 해당하는 『삼국유사』 「의해」 편에는 삼국시대의 수많은 불교 지성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가운데는 학덕이 높은 고승(高僧)들의 전기가 남아 있다. 이 장에서 다룰 진감 선사는 비록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역시 당시의 고승으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다.

이 논문에서는 진감 선사를 신라 하대의 대표적 불교 지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그의 삶을 교육학적 탐구 대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가 고승의 삶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고승은 초능력을 지닌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학덕을 연마하고, 연마한 학덕을 바탕으로 교화력을 발휘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고승은 처음부터 고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고승이 되며(형성되며), 고승으로서 교육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고승은 인간이지만 보통의 인간이 아닌 지성인이며, 그런 의미에서 고승은 그 시대의 교육적 인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지성으로서 고승을 교육학적 탐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교교육사 뿐 아니라 일반 교육사 연구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학 연구에서는 사상가를 연구할 때, 주로 사상가의 사상에 주목했지 사상가의 삶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해왔다. 어떻게 보면, 사상이 연구에서 사상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승 연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고승의 사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구의 범위를 단지 사상에 한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된다. 교육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 고승의 삶, 일생 자체가 교육학적 연구 대상이 된다.²⁾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승은 처음부터 고승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사람이라면, 따라서 고승이 된 이후의 사상이나 교화 실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승이 되기까지의 학습과 수행의 과정 역시 교육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역대 『고승전』에서는 고승의 일생을 출가, 득도 이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출신 사항, 성장과정과 수행 행적, 그리고 교화 행적과 열반의 사항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여기에서도 진감 선사님의 삶 전체를 연구

1) 이러한 주장은 필자가 「한국 고대교육사 연구와 불교 지성으로서 고승」(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 연구』 33권, 2010년 6월)과 「신라 지성사의 구성과 그 특질-한국 고대 교육사 연구 대상과 방법의 확장을 위한 시론-」(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제34권 제3호, 2012년 9월)에서 제기한 바 있다.

2) 진감선사를 교육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선행 연구는 진창영, 「진감선사의 선불교 교화실천과 교학사상의 교육적 의의」(한국교육사상연구회, 『教育思想研究』, 24권 3호, 2010)가 유일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진감 선사의 교화실천, 교육사상 탐구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선사의 삶의 전 과정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을 지성의 형성과 발현이라고 보는 교육지성사의 관점에서, 고승의 지성 형성과 발현의 과정이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지니는 교육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대상으로 보고,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육학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진감 선사에 관한 직접적 자료로는 최치원이 지은 비문 하나(비문의 정식 명칭은 “有唐新羅國故智異山雙谿寺教誡眞鑒禪師碑銘并序”이고, 비의 명칭은 雙溪寺眞鑑禪師大空塔碑임)가 전부이다. 이 자료만으로 당시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점이 진감 선사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진감 선사가 신라불교사에서 지니는 의의는 적지 않으며, 고대 교육지성사, 고대 교육사상가 연구 등 한국 고대교육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인생행로를 택했던 선사(禪師)들의 삶을 참조해서 그의 삶을 재구성해보고, 교육학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II. 출생 및 성장기의 삶

진감 선사 혜소는 늦은 나이인 서른한 살에 중국에서 출가하였다.³⁾ 여기서는 출가 전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사의 조상과 출생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사의 속가의 성은 최씨이며, 그의 선조는 신라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문에서는 “그 선대는 한족(漢族)으로 산동의 고관이었다. 수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요동 지방을 정벌하다가 고구려에서 많이 죽자, 뜻을 굽히고 귀화한 자가 있었는데, 당나라가 옛 한사군 지역을 차지함에 이르러, 바로 전주의 금마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 쉽게 말하면, 그의 먼 선조는 산동 지역의 한족이었는데 수나라가 요동을 정벌할 때 귀화하여 고구려 사람이 되어 그곳에 살았다. 그런데 당나라가 다시 그 지역을 차지하니 이번에는 옛 백제 땅인 금마에 와서 신라인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의 선조가 금마에 정착하게 된 것은 고구려 보장왕의 서자(庶子)인 안승(安勝)이 고구려 유민 4천호를 거느리고 투항하여 금마저(金馬渚, 익산)에 정착했을 때이며,⁵⁾ 당시 최씨 성을 하사받았고, 품계는 6두품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 그런데 당시 선종의 승려들은 대개 6두품이었으며, 도당유학승들 역시 6두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감 선사의 도당유학은 필연적이었던 생각이 든다. 먼 선조가 중국의 한족 출신이었으며, 도당유학에 적극적인 선종의

3) 고승들의 출가 시기나 장소는 일정 하지 않다. 진감 선사의 경우, 출가 시기가 이례적으로 늦은 편이며, 중국에서 출가한 경우는 원광이 있다.

4) 이 논문에서 인용한 진감선사의 碑銘은 최영성 역주, 『譯註 崔致遠全集 1-四山碑銘-』(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의 원문과 번역을 참조하였으며 번역은 부분적으로 필자가 고쳐 적었다. 원문을 인용한 곳에는 최영성의 책의 쪽수를 적어 놓았으며, 원고의 분량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원문의 부기를 생략하였다.

5) 『삼국사기』 신문왕 3년 10월조.

6)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서울: 일조각, 1974), 47쪽 및 김정권, 「진감선사 혜소의 남종선 수용과 쌍계사 창건」 『역사와 담론』 27호(호서사학회, 1999), 4쪽.

승려였으며, 여기다 현실적으로 지방 6두품으로 출세의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그가 택할 길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선사의 불교와의 인연은 아버지 창원(昌元)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창원은 재가인이었지만 출가인의 행동을 한 사람으로 비문에 묘사되어 있다. 독실한 재가 불자, 즉 우바새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가 왜 불교에 심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의 불교적 삶은 그의 출생 및 성장기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영향은 먼저 태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비문에서는 어머니 고씨(顧氏)가 일찍이 낮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범승(梵僧)이 나타나 “나는 아미(阿彌, 신라말로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르며, 유리 항아리를 징표로 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선사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⁷⁾ 이를 보아, 그는 이미 전생에 인도의 승려였으며, 그의 아버지의 수행 공덕으로 환생한 것이다. 그리고 징표로 준 유리 항아리는 뒷날 그가 숭산 소림사에 갔을 때 유리단에서 구족계를 받음으로써 태몽이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⁸⁾ 아버지의 영향은 태몽과 함께 어릴 때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문에서는 “태어나면서 울지 않았으니, 곧 일찍부터 소리가 작고 말이 없는 거룩한 싹을 타고 났던 것이다. 이 [齒]를 갈 무렵이 되자, 아이들과 놀 때에는 반드시 나뭇잎을 태워 향이라 하고, 꽃을 따서 공양으로 삼았으며, 간혹 서쪽을 향해 바르게 앉아 해가 기울도록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였다.⁹⁾ 태어나면서 울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품성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겠지만 그가 놀 때 나뭇잎을 태워 향이라 하고, 꽃을 공양했다는 것은 불교 의례를 일상생활 속에서 접했다는 것이 된다. 아마 아버지가 절에 갈 때 데리고 갔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러한 불교 의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서쪽을 향해 바르게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미타 수행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문을 지은 최치원은 진감 선사의 이와 같은 아동기의 행동을 보고 “이로써 선본(善本)이 진실로 백천 겁 전에 심어진 바임을 알지니, 발돋움하여 따라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⁰⁾ 불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환경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같은 주위의 환경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보면, 단지 눈에 보이는 환경적 영향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백천 겁 동안 심은 선근이 싹이 튼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진감 선사의 출가 전 행적에 대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생활고와 관련한 것이다. 집에만 머무는 여유 곡식도 없었고, 한 자의 땅때기도 없었기에 소규모 생선 장사를 벌여 부모를 극진히 봉양했다는 사실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¹¹⁾ 표면적으로 보면 6두품이었을 그

7) 최영성 역주, 앞의 책, 174쪽.

8) 위의 책, 174쪽.

9) 위의 책, 174-175쪽.

10) 위의 책, 175쪽.

11) 위의 책, 175쪽.

의 집안이 이렇게 가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백제 유민이 살던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이 받았을 차별은 컸을 것이고, 더구나 신라 하대의 혼란상황에서 6두품이라 하더라도 몇 대에 걸쳐 일정한 관직이 없는 집안이었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실제 왕족 안승의 족자(族子) 대문(大文)이 금마에서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복주(伏誅)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유민들이 받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 이러한 현실적 난관을 종교로 극복하고자 그의 아버지 창원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추론도 해볼 수 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날 불교의 대선사가 된 사람이 젊어서 생선 장사를 했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의 싹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불살생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불제자가 생선 장사를 했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이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날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은, 또 선사 자신이 뒷날 국사(國師)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제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케 한다. 부모 사후 장례를 치르자마자 말하기를 “길러주신 은혜는 애오라지 힘써 보답하였으나, 심오한 진리를 어찌 마음으로써 구하지 않으랴. 내 어찌 덩굴에 매달린 조롱박처럼, 한창 나이에 걸어진 자취에만 머무를 것인가.”라고 하며,¹⁴⁾ 주저 없이 도당유학의 길을 선택했다. 이를 보면, 그가 비록 생선 장사를 하면서까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어도 평소 불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른 한 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그는 뱃사공을 자원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스승을 만나 불법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향 공양, 꽃 공양 놀이를 하던 것은 아동기였고, 부모를 모셨을 때는 이미 청년기 혹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그 사이 그의 삶은 다만 생선 장사로만 살았던 것일까. 부모가 별세하자마자 바로 도당유학을 결심한 것은 이미 그 전에 결심이 서 있었다는 말이고, 나아가 그 사이 불교 공부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가 그 늦은 나이에 도당유학을 한 것은 부모 봉양 때문이었다. 부모 봉양이 출가의 한 장애 요소가 된 사례는 의상 대사의 제자였던 진정 법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라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진감 선사 역시 출가가 늦게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도 불교에 대한 공부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 사이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을까. 그가 살던 금마 지역의 불교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앞서도 말하였지만 이 금마 지역은 통일 당시 고구려의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살던 곳이다. 고구려 유민 가운데는 승려 계층도 있었을 것이다. 국사학계에서는 그 가운

12) 이흥직, 「고구려유민에 관한 1, 2의 사료」 『사총』10호(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5), 157쪽.

13) 김정권, 앞의 논문, 5-6쪽.

14) 최영성 역주, 앞의 책, 175-176쪽.

데 한 사람으로 고구려 멸망 직전에 완산주로 옮겨온 보덕 화상에 주목하고 있다.¹⁵⁾ 보덕 화상은 고구려 말기에 보장왕이 재상 연개소문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교를 융성시키려 할 때 반룡사에 주석하고 있었다. 그때 도교가 불교에 필적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면 여러 차례 불가함을 간하였다. 그러나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통력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방장을 날려 남쪽 완산주의 고대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완산주에서 절(경복사)을 짓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그 가운데 제자 수정(水淨)은 유마사(維摩寺)를 창건하였다.¹⁶⁾ 이 유마사의 위치는 지금의 정읍 지역인데 진감 선사의 아버지이자 재가 거사였던 최창원과 유마 거사의 생각하여 세운 유마사는 일정한 관계가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다.¹⁷⁾ 만일 그렇다면 진감 선사 역시 이 절에서 공부하였을 것이고, 그 공부의 내용은 보덕 화상이 평소 강경한 『열반경』, 『방등경』, 『유마경』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진감 선사의 삶 자체가 불교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삶이지만, 출생과 성장기의 삶에도 불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고, 여기에는 그의 아버지 창원의 삶이 모델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Ⅲ. 수행 및 수학기의 삶

선사는 서른 한 살의 늦은 나이에 세공사(歲貢使)의 뱃사공이 되어 “자비의 배에 노를 저어서 고난의 바다를 건넜고, 중국에 도착하자 국사(國使)에게 사람마다 각기 뜻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 여기서 작별을 고향까 합니다, 라며 하고” 헤어졌다고 했다.¹⁸⁾ 이때까지는 아직 출가 전이었다. 일행과 헤어진 그는 창주(滄州)로 가서 신감(神鑒) 대사를 만나 머리를 깎게 되었다. 여기서 출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문하에서의 수학과 수행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다. 다만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 “슬프게 이별한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기쁘게 다시 만나는구려!”라고 하며 신감 선사가 전생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는 내용, 같이 수행하던 스님들이 “동방의 성인을 여기서 다시 뵈는구나!”라며 존중한 내용, 그리고 선사의 얼굴이 검어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흑두타(黑頭陀)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¹⁹⁾ 이것은 그가 신감의 문하에서 상당한 대우와 인정을 받았다는 것, 고행 수행을 하는 두타 행자로 생활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의 중국에서의 첫 스승인 신감 선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송고승전』에는 이렇게 기록

15) 이흥직, 앞의 논문, 153-154쪽 및 김정권, 앞의 논문, 8-9쪽.

16) 『삼국유사』 「흥법」, 보장봉로 보덕이암.

17) 김정권, 앞의 논문, 8-9쪽.

18) 최영성 역주, 앞의 책, 176쪽.

19) 위의 책, 176-177쪽.

하고 있다.²⁰⁾

신감의 성은 한(韓)씨고, 심양(瀋陽)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조용한 성품으로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제안(齊安) 지방의 하급 관리였으나 불가에 귀의하여 일찍이 관청 앞에 불상을 설치하여 스님들에게 범패 소리로 부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불교 음악을 함께 짓기도 하였다. 신감은 이에 회색이 만면하였고, 스님을 따라가 떨어지지 않았고, 출가하기를 원했다. 부모는 저지할 방책이 없었다. 잠시 동림사 정소(貞素) 율사 아래서 수학을 했다. 뒤에 『대열반경』의 뜻을 강의하는 데 능통했고, 이에 남극의 예장에서 대적(大寂) 선사를 참예하였다. 그리고 이어 회안의 서북산에서 머물렀다. 이산에는 일찍이 소[牛]주위에 맹수들이 많아 해를 입히곤 했으나 신감이 이 산에 머문 뒤로는 호환이 그쳤다고 원근의 사람들이 칭찬했다. 홀연히 두건을 쓴 남자가 법좌를 바라보며 정중히 예를 올리고 재빨리 종적을 감추었다. 7일 후, 특이한 의관을 착용한 사람이 방장 앞에서 공중을 올라가며 이르기를 “이 대사님은 참으로 범보다. 인천(人天)의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였다. 그 승도들이 이를 듣고 신감의 도가 높음을 알았다. 회창 4년에 입멸했다. 8월 15일 탑에 유골을 모셨다.

이 기록에는 신감의 어릴 때 모습과 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당시는 아직 중국에서도 선종이 독립된 사원을 가지지 못한 채 율종에 부속되어 있었던 시절인데 그 역시 율사에게서 수학하는 모습도 보인다. 선사로서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신감 대사는 선종의 고승 마조(馬祖, 709-788)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마조는 중국 선종사에서 유명한 선사로서 6조 혜능(慧能, 638-713)의 제자인 남악 회양(懷讓, 677-744)의 제자이다. 마조의 문하에는 남전 보원(普願, 748-834), 백장 회해(懷海, 749-814) 등 수많은 선사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나와 교화를 펼치는 88인이고, 숨어서 지낸 이는 그 수효를 알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²¹⁾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신감 선사다. 진감이 신감 선사를 바로 찾아간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미 신감 선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보란 다름 아닌 신감 선사가 선종, 특히 남종선의 범맥을 잇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당시 신라 사회에서는 아직 남종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점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남종선의 실체나 신감 선사의 존재에 대해 잘 몰랐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²²⁾ 그러나 남종선이 신라 사회에 유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아직 신라에서 선종이 독자적 종파로서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종에 대한 정보가 신라에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세공사 사절단과 헤어져 망설임 없이 바로 신감 선사를 찾았다는 것은 남종선 혹은 신감 선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혹자는 신감 선사를 찾은 이유에 대해 앞서 말한 고구려에서 온 고승 보덕이 『열반경』에 능했는데, 진감

20) 『宋高僧傳』권20, 「感通」, 唐唐州雲秀山 釋神鑒.

21) 김월운 옮김, 『조당집 2』(서울: 동국역경원, 2008), 196쪽.

22) 김정권, 앞의 논문, 8쪽.

선사 역시 출가 전에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신감 선사 역시 『열반경』에 능했으므로 그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여기기도 한다.²³⁾

그렇다면 신감 선사의 문하에 들어온 이후의 수행이나 수학은 어떠하였을까. 그의 비문에는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별명이 흑두타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타는 원래 소욕과 지족을 이념으로 하는 불교 수행법으로 석가모니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다. 석가모니 10대 제자 가운데 마하가섭은 분소의를 입고, 차제결식하며 아란야에 머무는 두타행을 실천함으로써 두타제일로 인정받았다. 수행기의 진감 선사의 두타행을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²⁴⁾

비록 마음은 고요한 물처럼 맑았지만, 자취는 조각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다. 그 언제인가. 고국의 중 도의(道義)가 먼저 중국에 도를 몰으러 왔는데 우연히 서로 만나 바라는 바가 일치하였으니, 서남쪽에서 벼를 얻은 것이다. 사방의 먼 곳을 두루 찾아보고 불지견(佛知見)을 증득하였다. 도의가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자, 선사는 곧 바로 종남산에 들어갔는데, 한없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 소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외롭고 쓸쓸하게 지관(止觀)하던 것이 3년이요, 뒤에 자각(紫閣)으로 나와 네거리에 지켜 앉아 쉼신을 삼아 가며 혜시(惠施)를 넓혀, 바쁘게 왕래하였던 것이 또 3년이였다. 이에 고행은 이미 닳기를 끝마쳤고, 다른 지방 역시 유력(遊歷)하기를 마친 터였다.

이를 보면, 그는 한 곳에 편안히 머물며 수행하기보다는 스승과 불적(佛跡)을 찾아다니며 유행(遊行)하는 수행자였다. 이국만리에서 신라의 도의 선사를 우연히 만나 추구하는 바가 같음을 알았음에도 헤어져 홀로 두타 수행을 거듭하였다. 도의 선사와 헤어져 들어간 종남산은 중국 불교의 성지다. 일찍이 도선(道宣, 596-667) 율사가 이곳에서 율종을 확립하였고, 두타행에 대해 강조한 적이 있고,²⁵⁾ 신라의 자장, 의상, 낭혜 화상 등도 빠짐없이 찾아 수행하던 곳이다. 여기서 진감 선사 역시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소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외롭고 쓸쓸하게 수행을 하였던 것이다. 이후에는 수도인 장안에 들어가 쉼신을 삼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으며, 그 이후에도 곳곳을 유력하였다. 사실, 이러한 두타행은 비단 진감 선사뿐 아니라 당시의 도당유학승들의 공통된 행적이기도 했다.²⁶⁾

다음으로 선종과 관련한 행적에 대해 알아보자. 그의 비문에는 원화(元和) 5년(810)에 숭산 소림사의 유리단(瑠璃壇)에서 구족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소림사는 주지하듯이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의 수행처로 선종의 성지다. 선사가 여기서 계를 받은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어머니의 태몽과 부합되는 큰 인연으로 생각했다. 그가 이곳에서 계를

23) 김정권, 위의 논문, 8-9쪽.

24) 최영성 역주, 앞의 책, 178쪽.

25) 김정권, 앞의 논문, 242쪽.

26) 안경식, 앞의 논문(2010), 203-204쪽.

받은 것은 그가 선종의 문하에 들어 간 것과 관련이 깊다. 스승 신감이 마조 선사의 직 제자였기에 남종선의 성지인 이곳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선종에 입문하였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진감의 선종 수행은 스승 신감 선사의 문하에서도 이루어졌겠지만 소림사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후 스승 신감 선사의 학사(學舍)로 돌아와 지내다 또 곳곳을 유력하였다. 이때 뜻밖에 신라의 도의 선사를 만났던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렇하다. 도의는 선덕왕 1년(780)에 입당하여 오대산을 거쳐 서당(西堂) 지장(智藏, 735-814)을 스승으로 모셨다. 이후 그 역시 두타의 길을 떠나 백장산 회해(懷海) 화상을 만나 “강서의 선맥이 몽땅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²⁷⁾ 도의와 진감이 정확히 언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당 지장 화상 역시 마조 선사의 제자였기에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은 마조 선사의 손제자인 셈이었다. 사실 지장 화상의 문하에는 도의 이외에도 이후 본여(本如), 홍섭(洪涉), 혜철(慧徹), 실상(實相) 등 신라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다. 특히 도의는 진감보다 몇 년 앞서 귀국하여 신라 남종선의 개조로 여겨지고 있다. 도의와 진감은 같은 신라 출신임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 와서도 같이 마조의 문하(손제자)였기 때문에 “바라는 바가 서로 같았다.”고 할 정도였다.²⁸⁾

선종은 원래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 하여 교학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문자로 만들어진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지 문자의 효용성마저 부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의 스승 신감은 앞서도 말하였지만 『대열반경』의 강의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진감이 신감을 찾은 것도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정도 한 바 있다. 또 신감의 스승이었던 마조 선사 역시 당대의 강서(江西) 지역의 대선승이었음에도 『능가경』을 비롯한 각종 경론에 매우 밝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경전 자체의 자구에 매이지 아니하고 달마의 일심법을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진감 역시 선종에 입문하여 일심법을 닦고, 선종의 고향인 소림사 유리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리고 일정 기간 계율 공부를 하여 계율에 밝게 된 후에는 다시 스승 신감의 학사(學舍)로 돌아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교학을 연찬했을 것이다. 일심법을 깨치고 경전을 보면, 경전을 보는 눈이 열리기에 이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니, 강색(絳色)이 꼭두서니 풀(茜草)에서 나와 그보다 더 붉고 청색이 쪽 풀에서 나와 그보다 더 푸른 것 같았다.”는 평가를 받았다.²⁹⁾

이를 보면, 진감은 27년간의 긴 세월을 당나라에 머물면서 선사로서 지관(止觀) 수행은 말할 것도 없고, 두타행을 기본으로 한 계율 공부와 당시 중국에서 번역되는 각종 경전을 중심으로 한 교학 공부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승으로부터

27) 김월운 옮김, 앞의 책, 364-365쪽.

28) 최영성 역주, 앞의 책, 178쪽.

29) 위의 책, 178쪽.

크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곳곳을 유력하면서 수행을 계속했다는 것은 그의 구도 과정이 선재동자의 그것과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다.

VI. 교화 실천기의 삶

불교의 교화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뒤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설법한 것이 역사적 출발점이다. 교화의 역사는 그 자체로 불교의 역사가 되기에, 역으로 불교사는 교화사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래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불교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상구보리를 기동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화중생을 또 하나의 기동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상구보리의 수행이 무르익으면 자연히 자비의 열매를 중생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니 교육학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배움의 역사와 가르침의 역사가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진감의 교화 실천은 흥덕왕 5년(830), 귀국 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그는 종남산에서 3년간 지관 수행을 하고 나서 장안으로 들어가 네 거리에 지켜 앉아 쉼신을 삼아 가며 혜시(惠施)를 넓혔다고 했다. 그 혜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단계는 이미 상구보리를 이룬 뒤, 하화중생을 시작한 단계로 보인다. 심우도의 마지막 단계는 입전수수(入塵垂手)다. 저자에 나아가 중생에게 손을 내미는 단계인 것이다.

그가 신라에 귀국했을 때는 이미 나이 57세의 노인이었다. 신라에서 그는 세 곳에 자리를 옮겨 교화를 펼쳤다. 첫 번째 교화지는 상주 장백사였다. 당시 왕(흥덕왕)은 “도의 선사가 지난번에 돌아오더니 상인(上人)께서 뒤이어 이르러 두 보살이 되셨도다. 옛날에 흑의를 입은 호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에는 누더기를 걸친 영웅을 보겠노라.”라고 진감 선사의 귀국을 환영했다. 그는 돌아올 때도 두타행을 하던 평소의 차림대로 누더기를 걸친 상태였던 것 같다. 그는 왕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왕경에 머물지 않고 상주 노악산(露岳山, 현재의 노음산)에 장백사(長栢寺)라는 절을 짓고 머물렀다. 자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를 두고 최치원은 “명의를 문전에 병자가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³⁰⁾

두 번째 교화지는 지리산 화개 부근에 터를 잡았다. 선사와 제자들이 직접 머물 곳을 찾았는데 삼법(三法) 화상이 세운 절의 남은 터전 위에 새롭게 절을 지었다. 삼법 화상은 낭주군(현 영암) 운암사 출신의 스님이다. 최근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선종육조혜능대사정상동래연기(禪宗六祖慧能大師頂相東來緣起)」와 같은 기록에 의하면, 삼법 화상은 중국 혜능 대사의 정상(頂相)을 가져왔다고 하였다.³¹⁾ 그런데 삼법 화상이 정말로 혜능 대사의

30) 위의 책, 180-181쪽.

31) 정영식, 송정숙, 『『禪宗六祖慧能大師頂相東來緣起』의 원문비판과 문제점』(대동철학회, 『대동철학』 40

정상을 가져왔는지는 일단 차지하자. 삼법 화상이 혜능 대사를 흠모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선종 공부를 하고 돌아온 진감 선사가 삼법 화상의 소식을 듣고 이쪽으로 교화지를 옮긴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기로 하자. 하여튼 이때의 교화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사이 희강왕이 즉위(836)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민애왕이 왕위에 올랐다(838). 왕은 진감 선사에게 특별히 국서(國書)를 내리고, 재를 올릴 비용을 보내서 왕실의 안녕을 발원해줄 것을 청했다. 그런데 선사는 열심히 선정(善政)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 발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여 사자(使者)를 돌려보냈다. 임금은 선사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깨달은 바가 있다 하였다. 그리고 선사가 색(色)과 공(空)을 모두 초월하고,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모두 원융하였다 하여 혜소(慧昭)라는 호를 내렸다. 또 선사의 적을 황룡사에 편입시키고, 서울로 오도록 청하였다. 그러나 태산처럼 굳건히 고매한 뜻을 지켜 결코 나아가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몇 년을 머물렀는데 이때도 법익(法益)을 청하는 사람들이 떠나 삼대처럼 들어서 열(列)을 이루었고, 거의 송곳 꽃을 만한 땅도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³²⁾

세 번째 교화지는 지리산 옥천사(쌍계사)다. 이곳의 정경에 대해서 비문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³³⁾

드디어 기묘한 절경을 두루 가리어 남령(南嶺)의 한 기슭을 얻으니, 앞이 확트여 시원스럽기가 으뜸이었다. 선사(禪寺)를 지움에 있어, 뒤로는 저녁노을이 끼는 봉우리에 의지하고, 앞으로는 구름이 비치는 간수(澗水)를 내려 보았다. 시야를 맑게 하는 것은 강 건너 먼 산이요, 컷부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돌에서 솟구쳐 흐르는 여울물 소리였다. 더욱이 봄이 되면 시냇가에 온갖 꽃들이 피고, 여름이 오면 길가에 소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가을이 되면 두 산 사이의 오목한 구렁에 밝은 달이 떠오르고, 겨울이 되면 산마루에 흰 눈이 뒤덮여, 철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온갖 물상(物像)이 빛을 나누며, 여러 울림소리가 어울려 울조리고, 수많은 바위들이 다투어 빼어났다. 일찍이 중국에 유학했던 사람으로서 찾아와 머물게 되면, 모두 깜짝 놀라 살펴보며 이르기를, “혜원(慧遠) 선사의 동림사를 바다 건너로 옮겨 왔도다! 연화장세계야 비범한 곳이니 비길 바 아니로되, 항아리 속에 별 천지가 있다는 말만큼 믿을 만하다고 했다. 흙을 판 대나무를 가로질러 시냇물을 끌어다가 축대를 돌아가며 사방으로 물을 대고는, 비로소 옥천(玉泉)이라는 이름으로 사방(寺勝)을 삼았다. 손꼽아 헤아려보니, 선사는 곧 혜능의 현손제자인지라, 이에 육조의 영당(影堂)을 세우고 흰 담을 채색으로 장식하여 중생을 인도하는 데 널리 이바지하였으니, 경(經)에 이른바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한 까닭에 화려하게 여러 빛깔을 섞어 많은 상(像)을 그린 것이다.

선사가 두 번째 거처에서 세 번째 거처로 옮긴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자면, 민애왕이 즉위하면서 선사를 왕실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여러 가지 노력은

집, 2007), 49-66쪽.

32) 최영성, 앞의 책, 181-183쪽.

33) 위의 책, 183-184쪽.

한 바 있다. 그런데 선사는 이를 굳게 거절하였다. 자연히 미묘한 관계가 되었을 수 있고, 이가 거처를 옮기게 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보다 불교 내적인 이유에 주목하고 싶다. 불교 내적인 이유도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삼법 화상과의 관계다. 삼법 화상과의 모종의 관련 속에서 육조 혜능의 정상(頂相)을 안치할 장소로 이곳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리산 지역에 선종의 선사들이 모여 들어 선종의 성지로서의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도 이미 학계에서는 지적한 바 있다.³⁴⁾ 필자는 이러한 기존의 주장도 수긍하지만 이와 아울러 수행 환경상의 이유에 주목하고 싶다. 옥천사는 경치가 빼어나 중국의 동림사(東林寺)에 비견할 정도였다고 했다. 주지하듯이, 동림사는 중국 정토불교의 초조(初祖)라고 할 수 있는 혜원(慧遠, 334-416)이 머물던 곳으로 호계삼소(虎溪三笑)의 고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환경이 수승한 곳에 선사(禪寺)를 지었다는 것은 수행과 교화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원은 학교와 같다. 사원을 짓는 것은 학교를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학교가 단지 학생을 가르치는 건물로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듯이 사원도 단지 수행자가 수행하는 공간적 건물로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맥루한(M. McLuhan, 1911-1980)이 이야기하였듯이 미디어 자체가 이미 메시지를 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학교가(학교라는 건물, 공간 자체가) 교육을 하는 것이다. 사원도 마찬가지다. 사원 자체가 하나의 교육미디어가 되는 것이다.³⁵⁾ 원래 사원의 설계와 조영은 일차적으로 불교사상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신라시대의 사원들은 아미타신앙, 미륵신앙, 관음신앙을 비롯한 화엄사상과 선사상 등 신라에 들어온 종교 사상을 공간적, 건축적, 예술적으로 구현한 것이고, 신라인은 그러한 공간적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상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사상은 경전이라는 문자적 도구에 의존하여 학습되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방식인 비문자적 도구인 사원 공간 자체에 의해 잠재적으로 학습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감 선사는 탁월한 교화미디어의 설계자라 할 것이다. 비문에 있듯이 뒤로는 저녁노을이 끼는 봉우리에 의지하고, 앞으로는 구름이 비치는 간수(澗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강 너머 먼 산이 시야를 맑게 하는 곳, 돌에서 솟구쳐 흐르는 여울물 소리가 컷부리를 시원하게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으며, 봄이 되면 시냇가에 온갖 꽃들이 피고, 여름이 되면 길가에 소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가을이 되면 두 산 사이의 오목한 구렁에 밝은 달이 떠오르고, 겨울이 되면 산마루에 흰 눈이 뒤덮여, 철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온갖 물상(物像)이 빛을 나누며, 여러 울림소리가 어울려 읊조리고, 수많은 바위들이 빼어난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은 신감 선사가 불교 공부, 특히 선 수행의 특성을

34) 김정권, 앞의 논문, 21-23쪽.

35) 맥루한의 견해와 교육 미디어의 문제는 필자의 논문 「전통사회의 교육공간으로서 불교의 사원」(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29권, 2009)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곳 옥천사의 교화 사적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육조의 영당을 세웠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사의 스승인 마조 스님이 육조 혜능의 법맥을 이은 분이며, 선사 자신도 구족계를 소림사에서 받은 인연 등을 생각할 때, 신라에 돌아와서 선종 수행과 사상을 이후의 교화에 일정 부분 반영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옥천사 이전의 행적에서는 전혀 그러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당시의 신라의 불교 풍토에서 선종은 낮은 것이고, 그래서 선종의 말을 마귀의 말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물론 중앙에는 여전히 교종의 대표적 세력인 화엄종이나 밀교의 위세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귀국 후, 곧장 신라 사회에서 선종을 전파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국 후, 국내 상황도 파악이 되었고, 제자나 단월 조직도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자 드디어 육조의 영당을 짓고, 육조상(六祖像)을 화려하게 장식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영당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삼법 화상과의 관계가 좀 더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즉 육조의 정상(頂相)을 정말 가져왔던 아니면 조상(造像)하였던 그것을 모실 육조의 영당을 지었다는 것은 당연히 육조를 예배의 대상으로 추모했다는 것이고, 나아가 관련 불교의식이나 강경(講經) 법회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감 선사의 교화 방법 가운데 특이한 것은 범패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문자가 없던 선사(先史) 시대의 교육에서 음악이 활용된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불교와 음악의 관계 역시 역사가 깊다. 불전(佛典)에는 게(偈, gāthā)라는 것이 있어 시적(詩的), 음악적 형식으로 불전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법화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에도 여러 형식의 게(게송, 계찬, 계언)가 있다. 그 가운데는 대화 형식의 게도 있지만 대부분 음악적 형식의 게다.³⁶⁾ 범패 역시 찬불 음악의 하나로서 곡조를 넣어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거나 경전의 내용을 읊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 입멸 후에 널리 유행했으며, 중국에서는 조위(曹魏) 시대(220-265)부터 유행했다고 알려져 있다.³⁷⁾ 신라에서도 경덕왕 19년(760)에 해가 들어되어 해결할 방도를 찾다 범패사(梵唄師)를 불러야 된다는 일관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전부터 범패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신라 밖이지만 산동 반도의 신라촌에 있었던 신라 사찰 적산 법화원(赤山法華院)에서도 범패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⁸⁾ 이 기록은 839년의 기록인데, 진감 선사의 범패 교화도 비슷한 시기이며, 국내에서의 사례에 해당한다.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³⁹⁾

36) 安京植, 「聖の教化活動とその教育史的意味」 『学習開発学研究』第9号(広島: 広島大学大学院 教育学研究科 学習開発学講座, 2016), p.75.

37) 『佛光大辭典 5』(臺北: 佛光出版社, 1988), 梵唄條.

38) 안경식, 「신라시대 강경(講經)의 교육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52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12), 89-94쪽.

39) 최영성 역주, 앞의 책, 187-188쪽.

평소 범패를 잘하였는데, 그 목소리가 금옥 같았다. 구슬픈 듯한 곡조에 나를 것 같은 소리는 상쾌하면서도 곡진하여, 능히 천상계의 곡조에 모든 신불(神佛)로 하여금 크게 환희케 하였다. 길이면 곳까지 흘러 전함에, 배우려는 사람이 승당을 가득 메웠는데,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어산(魚山)의 묘한 곡조를 익히는 자가 코를 막고 가곡을 배우듯, 다투어 옥천의 여향(餘響)을 본받으려 하니, 어찌 성문(聲聞)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교화가 아니겠는가.

선사의 범패는 아마 그의 스승 신감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스승 역시 범패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적산 법화원의 경우, 강경 의식에서 범패를 행했고, 당시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범패사가 따로 있었다. 당시의 범패는 강경 법회가 시작되기 전에 참석자 모두가 정좌한 뒤, 범패사가 법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송에 담아 범패를 한다. 당시 이 절은 천대 법화의 절이었고, 천대 법화의 범패는 “운하어차경(云何於此經), 구경도피안(究竟到彼岸), 원불개미밀(願佛開微密), 광위중생설(廣爲衆生說)”을 길게 읊게 되는 일종의 청법가에 해당한다.⁴⁰⁾ 즉 범패는 본 의식인 강경의 전 단계, 전(前) 의식에 사용되는 중생 교화용 음악의 성격을 지녔다. 일본의 승려 코칸 시렌(虎關 師鍊, 1278-1346)이 지은 『원형석서(元亨釋書)』의 지(志)에는 음악예술[音藝]에 대해 경사(經師), 성명(聲明), 창도(唱導), 염불(念佛)의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명이 바로 범패의 다른 말이다. 이 책에서는 “참된 가르침의 본체, 그 청정함은 소리를 들음에 있다”는 『능엄경(楞嚴經)』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범패가 중생 교화의 중요한 미디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⁴¹⁾ 그런데 범패가 중생 교화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미 양(梁)나라의 혜교(慧皎, 497-554)의 『고승전(高僧傳)』에서는 범패의 다섯 가지 이익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 “기억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不忘所憶].” 라고 하였다.⁴²⁾ 운율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면을 이야기한 것이다. 하여튼 진감 선사의 경우는 이 범패를 사용하여 신도들의 종교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배우려고 하였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

비문에는 선사의 인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의 교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진다.⁴³⁾

선사의 성품은 질박함을 흠트리지 않았고, 말은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입는 것은 현 솜이나 삼베도 따뜻하게 여겼고, 먹는 것은 겨나 보리 씨라기도 달게 여겼다. 상수리와 콩을 섞은 범벅에 나물자반도 둘이 아니었는데, 존귀한 사람이 가끔 왔지만, 일찍이 다른 반찬이 없었다. 문인(門人)이 뱃속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여 올리기를 어려워하면 말하기를, “마음이 있어 여기에 왔을 것이니, 비록 거친 현미인들 무엇이 해로우랴”고 하였으며,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그리고 늙은이

40) 안정식, 앞의 논문(2016), 92쪽.

41) 虎關 師鍊, 『元亨釋書』 丁天求 譯註, 『원형석서(하)』(서울: 씨·아이·알, 2010), 548쪽.

42) 慧皎, 『梁高僧傳』, 「經師」.

43) 최영성 역주, 앞의 책, 186쪽.

와 젊은이를 가릴 것 없이 대접함이 한결 같았다.(…)어찌다 호향(胡香)을 선물하는 이가 있으면, 절 그릇에 잣불을 담아 환(丸)을 짓지 않은 채로 사르면서 말하기를, “나는 냄새가 어떠한지 분별하지 못한다. 마음만 경건히 할 따름이다.”고 하였으며, 다시 한차(漢茶)를 진공(進供)하는 자가 있으면, 땀나뭇로 돌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는 가루로 만들지 않고 끓이면서 말하기를, “나는 맛이 어떠한지 분별하지 못한다. 뱃속을 적실 뿐이다.”라고 하였다. 참된 것을 지키고 속된 것을 싫어함이 모두 이러한 것들이었다.

의, 식, 주에 있어서 좋고 싫음을 가리는 분별심이 없었다는 말이다. 선사는 문성왕 12년(850)에 열반에 들었는데, 이때 문인들에게 “모든 법이 다 공(空)하니 나도 장차 가게 될 것이다. 일심(一心)이 근본이니 너희들은 힘쓸지어다.”라는 말을 남겼다.⁴⁴⁾ 일심은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자 그의 삶을 지배한 사상이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진감선사의 삶의 교육학적 의미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한국 고대의 교육, 특히 신라시대 교육사와 관련하여서 불교적 전통에 대해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 가운데 신라 하대의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실제 우리가 주지하듯이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들어와 자리 잡았고, 많은 불교 지성들이 배출되었다. 이른바 9산 선문 관련 인물만 하더라도 가지산문의 도의국사를 비롯하여 실상산문의 홍척, 동리산문의 해철, 사자산문의 도운, 성주산문의 무염, 사굴산문의 범일, 회양산문의 도현, 봉림산문의 현옥, 수미산문의 이엄 등의 개창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9세기초엽부터 10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활약한 바 있다. 진감 선사는 바로 이때, 신라 하대 불교 지성의 한 전형이었다. 우리는 진감 선사를 통하여 신라 하대의 불교 지성들의 삶과 그 삶이 지니는 교육학적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이제 교육사의 관점, 크게 보아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감 선사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점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신라 시대의 불교인의 가정교육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감 선사의 경우, 이미 어머니가 불교 관련 태몽을 꾸고 아버지가 우바이일 정도로 불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다. 지금은 태몽에 대해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고대사회에서는 태어날 아이의 삶과 관련성을 깊이 인정하여 상당히 중시했다. 태몽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삶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이 반영된 꿈의 모습이기도 하다. 진감 선사의 경우, 아버지가 재가 불교 수행자였으며 그러한 것이 선사의 태몽과 이후의 삶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태몽은 자연스레 태교와 관련이 된다. 동시대의 무염국사

44) 위의 책, 185쪽.

(801-888)의 경우, 천인(天人)이 연꽃을 내려주는 것을 보고 임신을 하였고, 그뒤 다시 꿈에 외국의 수행승이 나타나 십계(十戒)를 주어 그것을 태교로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⁵⁾ 이와 같이 고승들의 경우, 대부분 태몽이나 태교가 있었는데, 이 역시 가정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진감 선사의 아동기의 행동, 즉 나뭇잎을 태워 향 공양을 하고, 꽃을 따다 꽃 공양을 하는 등의 행동 역시 불교적 가정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신라 하대 고승의 수행 과정과 학습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 시대 고승들의 수행과정은 다양하나 신라 하대의 고승의 경우는 대개 도당(渡唐) 유학을 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문 9산의 개창자의 경우, 회양산문을 개창한 도현을 제외하고 모두 유학을 선택했다. 진감 선사의 경우, 신라 하대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유학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중국에서 머물며 수행, 수학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험난한 해외 유학의 길을 선택한 것은 모두 도를 구하려는 개인적인 결단이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그 결과 문화적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신라 하대 여러 고승들의 유학 덕분에 지증대사(824-882)의 시대가 되면 신라에도 어느 정도 자체적 역량이 축적되었고, 이를 최치원은 “다복쑤이 삼대[麻]에 의지하여 스스로 곧을 수 있었고, 구슬은 내 몸에서 찾으매 이웃에게 빌리는 것을 그만 두었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⁴⁶⁾ 그리고 수학의 과정에서 신라 하대의 고승들은 대개 마조 선사의 문하, 서당 지장의 문하에 입문하였으며, 그리하여 남종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진감 선사 역시 마조의 제자 신감의 문하에 입문하여 교학에 관한 문자 공부와 지관 수행을 함께 닦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감의 문하에만 머물며 공부한 것은 아니고 곳곳을 유력하면서 수행하였는데, 이 역시 당시의 신라 유학승들의 공통된 행적이었다.

셋째, 다양한 교화 미디어를 대중교화에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고승들의 교화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교사 뿐 아니라 신라교육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원효를 비롯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교화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진감 선사의 삶에서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대중교화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인 대중교화를 위해 여러 가지 교화 미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진감 선사는 귀국 후, 중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 차례에 걸쳐 교화지를 옮겨 다니며 사원을 개축, 신축하여 교화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옥천사는 산수(山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축한 사원으로서 선종의 수행에 적합한 공간 미디어의 개발 사례가 된다.⁴⁷⁾ 그는 대중의

45) 위의 책, 109-110쪽.

46) 위의 책, 332쪽.

47) 일본의 선종 사원들을 보면 가래 산스이(枯山水, かれさんすい)라는 독특한 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세 무로마치 시대에 개발된 것으로 일본 불교 예술의 한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신라 사원의 형식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부족하다. 진감 선사의 사원 건축에 대한 비문의 내용은 건축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료이지만 불교 사원이 학교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교육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료이다.

수행과 교화를 위해 산수자연을 활용한 사원 건축을 설계하였지만, 사원 자체가 교육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는 교육미디어의 개발자가 된 것이다. 그는 또 교육 실체에 있어서도 불교 음악의 한 종류인 범패를 교육 미디어로 활용하였다. 종교 교육의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데 범패가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패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또 육조의 영당을 만들고 담장을 채색을 함으로써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는데, 이 역시 시각 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는 신라 사회의 불교 교육이 결코 단조롭지 않았고 매우 다양한 미디어가 활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가 진감 선사 자신의 수행의 결과물인 인품의 발현과 결부됨으로써 그의 대중교화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넷째, 신라 하대 고승들의 지도자 교육, 특히 국왕교육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시대의 국왕들의 스승 역할을 한 사람들은 유학자들도 있지만⁴⁸⁾ 대개는 고승들이다. 신라 하대에는 주로 선종의 고승들이 국사(國師)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 진감 선사도 국사로써 흥덕왕을 비롯한 당시의 여러 왕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신라 하대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민애왕은 즉위 후, 왕실 안녕 발원 기도를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진감 선사는 선승답게 정치적 난국을 기도로 타개하려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였다. 대신 선정(善政)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치 문제는 주술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적 행위로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왕에게 일깨워주는 방식의 군주교육이었던 것이다. 진감 이외의 이 시대의 많은 선사들도 국왕과 불가근불가원의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개입하더라도 전대의 주술적 방식을 탈피하였다. 낭혜 화상의 경우도 현강왕의 측근이 되기를 거부하였으며 능관인(能官人)이라고 하여 유능한 관리를 등용하는 방식으로 정치할 것을 조언한 바 있다. 신라 중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라 불교는 국가불교의 성격이 짙었으나 신라 하대가 되면 국가불교의 성격은 상당히 약화된 다. 여기에는 정치적 상황도 있겠지만 진감 선사와 같은 불교 지성이 등장하여 정치와 거리를 두고 불교적 방식으로 국왕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도 관련이 있다.

다섯째, 신라 하대, 불교가 지방교육, 서민교육에 끼친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나를 짐작하게 해준다. 진감 선사는 독자적으로 산문을 개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지방교육, 서민교육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사실, 신라시대 전체를 보더라도 체계적인 지방교육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지방을 연고로 하는 산문의 개창과 선사들의 지방 거주는 그 자체로 큰 교육적 자량(資糧)이 되었다. 선사들은 곳곳에서 사원을 개창하였고, 자체적으로 후학들을 양성하였으며, 동시에 지방민들에게는 교화의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는 신라 하대 교육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한국 고대 지성사에서 불교 지성의 위상을 알려주고 있다. 고려 시대도 그러하

48) 유학자로서 국왕을 교육한 사람으로 설총이나 최치원을 들 수 있다. 설총은 화왕게로써 은근하게 임금을 훈계하였으며, 최치원은 시무책을 통하여 일종의 군주교육을 하였다 볼 수 있다.

였지만 특히 신라시대에는 승려들이 대표적 지식인이었고, 고승은 그 시대의 지성이었다. 낭혜화상의 비문을 지은 최치원은 당시의 불교 선사들을 심학자(心學者)라고 하고 자신과 같은 유학자를 구학자(口學者)라고 하면서, 중국에 가서 공부한 것은 같지만 자신은 낭혜화상과 같은 사람의 비문을 쓰는 신세임을 자탄한 바가 있다. 즉 구학자의 공부는 말을 남기는 것이고, 심학자의 공부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심학자를 부러워 한 것이다.⁴⁹⁾ 신라의 지성은 크게 유교지성과 불교지성으로 나눌 수 있다. 신라 유교지성의 역할은 대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며, 학문도 체제내의 학문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불교지성은 마음을 닦는 사람들로 덕을 세우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그들의 삶이 국가와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유를 지향하는 개인의 삶을 우선했다는 것을 진감 선사의 삶이 보여주고 있다.⁵⁰⁾ 진감 선사의 삶은 한국 고대 지성사에서 불교 지성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불교 지성에 힘입어 신라는 고대 사회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우수한 문화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

49) 최영성, 앞의 책, 105쪽.

50) 안경식, 앞의 논문(2010), 218쪽.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梁高僧傳』

『宋高僧傳』

김월운 옮김. 『조당집 2』. 서울: 동국역경원. 2008.

김정권. 「진감선사 혜소의 남종선 수용과 쌍계사 창건」. 『역사와 담론』 27호(호서사학회, 1999).

김정천. 「불교수행의 두타행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안경식. 「전통사회의 교육공간으로서 불교의 사원」. 『종교교육학연구』 29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안경식. 「한국 고대교육사 연구와 불교 지성으로서 고승」. 『종교교육학연구』 33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안경식. 「신라 지성사의 구성과 그 특질-한국 고대 교육사 연구 대상과 방법의 확장을 위한 시론-」. 『한국교육사학』 제34권 제3호(한국교육사학회, 2012).

안경식. 「신라시대 강경(講經)의 교육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52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安京植. 「聖の教化活動とその教育史的意味」. 『学習開発学研究』 第9号(広島: 広島大学大学院 教育学研究科 学習開発学講座, 2016).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1974.

이흥직. 「고구려유민에 관한 1, 2의 사료」. 『사충』 10호(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5).

정영식, 송정숙, 「『禪宗六祖慧能大師頂相東來緣起』의 원문비판과 문제점」. 『대동철학』 40집(대동철학회, 2007).

진창영. 「진감선사의 선불교 교화실천과 교학사상의 교육적 의의」. 『教育思想研究』, 24권 3호(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0).

최영성 역주. 『譯註 崔致遠全集 1-四山碑銘』.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虎關 師鍊. 『元亨釋書』. 丁天求 譯註. 『원형석서(하)』. 서울: 씨·아이·알. 2010.

원고접수일: 2017년 6월 19일 심사일: 2017년 7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22일
연구자소개: 안경식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부산대학교

② 관심영역: 불교교육, 고대교육, 전통아동교육

③ 주요논저: 『구비설화에 나타난 한국전통교육』, 『한국전통아동교육사상』, 「신라시대
강경의 교육적 의의」, 「금강경의 윤통과정과 교화사적의 교육사적 의의」

④ E-mail: sinosan@pusan.ac.kr

Abstract

Educational Meaning of Venerable Jingams Life in Later Silla Era

Gyeong-Sik A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Venerable Jingam(眞鑑)s life from the view of the education. The reason why I paid attention to the life of the Venerable monk is for his educational carrier and is not for his native ability. The Venerable monk is not to be born in a Venerable monk state since he was born. He become a Venerable monk through a process of the education. So I am interested for Venerable monk life. A Venerable monk is an intellectual person of the time and is an ideal educator of the time. We can understand what is ideal teacher of later Silla period, and what is educational model through the life of Venerable Jingam. This article is comprised of three chapters except a preface and a conclusion. I studied the process of birth of the Venerable Jingam and the life of the period of growth in Chapter 2 of the article. I considered a process of the training after having become a priest in Chapter 3 and considered the life as the educator of the Buddhism in Chapter 4. I summarized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Venerable Jingams lifetime with six kinds by a conclusion as follows. It is first and points it out for the importance of parents and domestic environment. Second, The Venerable monk brought up their intelligence through studying abroad. The studying abroad was one of the learning processes that most Venerable monk of the later Silla Era. Third, Venerable Jingam utilized chanting the sutra text as a method of the education. This was the educational method that was very rare in Silla. Forth, Venerable Jingam became a master of the king(國師), and this means that Buddhism had a big influence on the education of the national leader like king. Fifth, as for the educational activity of the Venerable Jingam,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point that had an influence on the local education and common people education. Sixth, Life and the educational activity of Venerable Jingam has a important meaning at the side of

the Buddhist intellectual history in Silla era.

Key words: Venerable Jingam(眞鑑), Buddhist Intellectual, Buddhism Education, History of Silla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Venerable monk, ancient education